

제주섬 생태문화의 현대적 의의

윤용택*

<차례>

- I. 들어가는 말
- II. 본 론
 - 1. 민간신앙에 깃든 '자연외경' 정신
 - 2. 신구간 풍속 속의 '자연순응' 정신
 - 3. 돌통시 문화 속의 '자원순환' 정신
 - 4. 갈옷 속에 깃든 '소박실용' 정신
 - 5. 수놓음 문화 속의 '상부상조' 정신
 - 6. 분가제도와 권당문화 속의 '자립공존' 정신
- III. 맺는 말

국문요약

세계는 지금 경제의 세계화와 양극화로 인한 경제위기, 과도한 개발논리에 의한 생태위기, 극단적 이기주의로 말미암은 공동체위기에 직면해 있다. 생태와 경제, 개인과 공동체는 자칫하면 악순환 구조를 통해 상호 파괴적 관계가 될 수 있지만, 우리가 지혜를 잘 발휘한다면 선순환 구조를 통해 호혜적 관계가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인류가 지속가능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생태, 경제, 공동체를 동시에 살릴 수 있는 고도의 지혜가 필요하다.

육지와 멀리 떨어진 섬은 제한된 공간과 유한한 자원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지구와 유사하다. 그렇기 때문에 섬사람들의 과거는 인류의 미래에 대한 좋은 모델이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생태적인 삶을 살았던 섬사람들의 전통문화는

* 제주대학교 철학과 교수, 환경철학

앞으로 인류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의미있는 메시지를 전해준다.

제주사람들은 산천초목과 인간 이외의 생명도 소중하다는 믿음(민간신앙)을 가지고 자연을 보전했고, 자연의 흐름에 순응하려는 세시풍속(신구간)을 지키면서, 각종 폐기물을 자원으로 순환하는 시스템(돛통시)을 통해서 자원고갈과 폐기물을 최소화했으며, 자연환경과 사회환경에 잘 맞는 옷(갈옷)과 먹거리를 창안하였다. 그리고 적은 자원과 인력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공동체(수눌음과 계)를 조직하였고, 개인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가족제도(분가제도)를 두면서, 필요하면 언제든지 협력할 수 있는 공동체 문화(켄당문화)를 마련하여 살아왔다. 그런 점에서 제주섬의 전통문화는 생태문화적 요소들을 많이 담고 있다.

물론 그러한 제주섬의 전통문화도 오늘날 관점에서 본다면 부정적인 측면들도 적지 않다. 이를테면 증량정신을 문자 그대로 적용하다보면 산업을 건전하게 유지하는데 필요한 적정 소비와 생산마저도 위축시킬 수 있다. 그리고 민간신앙과 신구간 풍속에는 비합리적 요소가 있고, 돛통시에는 비위생적 요소가 있으며, 수눌음은 불필요한 과소비를 부추기고, 켄당문화는 합리적 선택과 비판마저도 질식시키는 맹목적 연고주의로 나아가게 하는 측면도 있다. 그리고 생산과 소비의 과잉으로 재화와 폐기물이 넘쳐나고, 대량 실업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일거리를 찾지 못하는 현대사회에 적은 자원과 노동력으로 살아가는 과정에서 생겨난 제주의 전통문화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도 무리이다.

하지만 우리는 전통문화의 내용과 형식 그 자체보다는 그 속에 깃든 정신과 지혜를 보아야 한다. 옛 제주사람들은 자연에 순응하고, 폐기물을 자원으로 순환시키며, 자원과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따로’하는 삶[自立]과 ‘함께’하는 삶[共存]을 유연하게 넘나들면서 경제적·정서적으로 최선의 합리적 삶을 추구했다. 그러한 제주의 전통문화 속에 깃든 정신과 지혜를 찾아낸다면, 앞으로 지속가능한 인류의 미래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전통문화, 생태문화, 민간신앙, 신구간, 돛통시, 갈옷, 수눌음, 분가제도, 켄당문화

I. 들어가는 말

오늘날 우리 사회는 신자유주의 추세에 따라 자유무역이 이뤄짐으로써 자본과 기술을 가진 세력은 살아남고 그러지 못한 영세농어민과 영세상공인들은 몰락하고 있다. 그리고 부와 소득의 측면에서 빠른 속도로 양극화가 진행됨으로써 대중들의 구매력이 떨어져 소비가 둔화되고 일자리가 줄게 되어 경제가 매우 어려워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무분별한 개발논리로 환경과 생태계가 파괴되고, 극단적 이기주의로 공동체가 해체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그러한 위기들을 해결하는 것은 단순한 지역사회의 문제를 넘어 국가 내지는 인류 사회 전체의 화두로 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가 그러한 위기들을 넘어 지속가능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생태계, 경제, 공동체를 동시에 살릴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일부에서는 생태와 경제, 개인과 공동체는 각각 상호 파괴적 관계이기 때문에 경제를 살리려면 생태계 파괴를 감수해야 하고,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다보면 공동체가 파괴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또 다른 이들은 인류가 생태위기에 처하고, 성장의 한계에 다다르게 된 것은 지구에 쓸 수 있는 자원과 공간이 유한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하기도 한다. 그러나 건강한 생태계를 보면 부분과 전체 사이에 역동적 균형상태가 유지되고, 유한한 자원과 공간을 잘 활용하면서 비교적 풍요로운 상태가 지속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게 본다면 생태와 경제, 개인과 공동체는 악순환 구조(negative feedback)를 통해 상호 파괴적 관계가 될 수도 있지만, 선순환 구조(positive feedback)를 통해 호혜적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건강한 생태계가 무궁무진한 것은 한 생명의 노폐물과 사체는 다른 생명이 살아가는 데 밑거름이 되고, 계절의 순환에 따라 낡은 것이 소멸

되고 새로운 것이 생성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속가능한 미래사회의 대안을 자연세계인 생태계에서 찾게 되다보면 존재(사실)의 영역에서 곧바로 당위(가치)의 영역으로 넘어가는 자연주의적 오류를 범하게 된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우리의 대안을 생태계 자체에서 찾기보다는 제한된 공간에서 적은 자원을 가지고 생태적으로 살았던 사회에서 찾는 것이 더 설득력 있다. 다시 말해서 지속가능한 미래의 생태사회 모델은 생태계 원리를 삶과 제도 속에 적용하면서 살았던 과거의 생태사회에서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전근대적 농경사회의 삶의 방식을 현대 산업사회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거나 설득력도 없다. 우리가 오늘날 되살려야 할 것은 전통문화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속에 깃든 생태적 사고들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이다.

건강한 생태계가 무궁무진(無窮無盡)할 수 있는 이유는 ①다양한 구성원들이(diversity) ②서로 네트워크를 형성하여(networks) ③전체와 부분 간에 역동적 균형을 이루면서(dynamic balance) ④서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partnership) ⑤한 종의 폐기물을 다른 종의 자원으로 순환시키기(cycles) 때문이다. 따라서 카프라는 그러한 생태계 원리를 잘 파악하여(ecoliteracy) 그것을 삶과 제도 속에 반영하여 생태적으로 설계한다면(ecodesign) 지속가능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고 주장한다(F. Capra, 2002: 229-233쪽).

그리고 지금까지 인간이 발견 내지는 발명한 가장 강력한 가설 중에 하나인 엔트로피 법칙에 따르면, 물질과 에너지는 한 방향으로만, 즉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부터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부터 이용할 수 없는 것으로, 또는 질서화된 것으로부터 무질서한 것으로 변화한다. 따라서 리프킨은 지구에서 인간이 쓸 수 있는 자원은

점점 고갈되고, 폐기물은 점점 늘어나게 됨으로써 인류의 위기가 도래할 것이기 때문에, 엔트로피 법칙에 입각한 새로운 세계관이 확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J. Rifkin, 1980: 6쪽).

그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논자는 우리 인간도 제한된 공간에서 적은 자원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다음의 원칙들이 필요하다고 본다. 첫째, 자연환경을 잘 보전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간 이외의 생명뿐만 아니라 생태계 전체도 소중한 존재로 받아들이는 자연관(自然觀)이 필요하다. 둘째, 되도록이면 에너지를 덜 쓰거나 재생가능한 에너지에 의존하는 저엔트로피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자연의 흐름에 순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자원고갈과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덜 쓰고 덜 버리는 것을 넘어서 폐기물을 자원으로 전환하는 순환사회로 되어야 한다. 넷째, 주어진 자연적 사회적 조건을 최대한으로 잘 활용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허례허식보다는 간소하면서도 실용적으로 살아가야 한다. 다섯째, 자원과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동체나 결사체를 형성하여 상부상조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자율적 존재인 인간이 보다 높은 삶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개인적 삶과 공동체적 삶 가운데 어느 하나에 매몰되지 않고 그 사이에서 역동적 균형이 이뤄져야 한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는 공동체적 삶을 구현하는 집단주의와 개인의 자율적 삶을 추구하는 개인주의를 지양하여 그 둘을 유연하게 넘나드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일단 여기서는 그러한 생태계의 원리와 논자의 원칙들이 비교적 잘 살아 있는 삶의 방식이나 제도를 생태문화로, 그것들을 삶과 제도 속에 잘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사회를 생태사회로 규정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 글에서는 제주섬의 전통문화 가운데 위의 원칙들에 부합되는 것들,

즉 생태적 요소가 강한 것들을 선택하여 그것들의 현대적 의의를 살펴볼 것이다.

물론 제주섬의 전통문화를 몇 가지 특성으로 규정짓는 데는 분명 한계가 있고 논란의 여지가 있다. 제주의 전통문화를 수집하고 채록해온 진성기 선생은 제주인의 정신을 분짓[分家]정신으로 대표되는 자주자립, 수눌음정신으로 대표되는 상부상조, 즈낭정신으로 대표되는 근면절약 등 세 가지로 요약하고 있다(진성기, 2005: 31-32쪽). 여기서 분짓정신은 제한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분할 관리하고, 즈낭정신은 제한된 재화를 최대한 절약하며, 수눌음 정신은 필요한 경우에 적은 노동력과 재화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관리한다는 점에서 생태문화적 요소가 짙게 스며있다.

그리고 산천초목과 우리를 둘러싼 모든 것을 신령스런 존재로 보는 제주의 민간신앙에는 오늘날 심층생태주의(deep ecology)에서 요구하는 ‘자연외경’ 정신이 깃들어 있고, 대한 후 5일에서 입춘 전 3일 사이에 만 짝을 수리하고 이사를 하는 신구간 풍속에는 ‘자연순응’ 정신이 들어 있으며, 인분뿐만 아니라 모든 생활쓰레기들을 돼지사료와 뚝거름으로 사용하는 뚝통시에는 ‘자원순환’ 정신이 들어 있고, 소박하지만 위생적이고 실용적인 갈옷 속에는 ‘소박실용’ 정신이 들어 있다.

제주섬의 전통문화에 대해서는 이미 선행연구가 많이 이뤄진 상태이다. 특히 여기서는 그러한 선행연구들 가운데 ‘민간신앙’에서의 현용준(2005), 진성기(2005, 2008), 하순애(2003) 등, ‘신구간 풍속’에서의 진성기(1967), 윤용택(2008) 등, ‘뚝통시’에서의 전경수(1997), 송성대(1998), 윤용택(2004) 등, ‘갈옷’에서의 고부자(2008), 현진숙(2008) 등, ‘수눌음과 계’에서의 김영돈(1984), 현용준(1986), 김석준(1993), 이기욱(1995, 2003) 등, ‘분가제도와 켤당문화’에서의 최재석(1979), 김혜숙(1999) 등

을 참조하였다. 그리고 논자는 ‘제주섬의 전통문화와 생태사상’(2007)에서 제주섬의 전통문화 속에서 생태문화적 요소들을 일부 확인한 바 있다. 여기서는 그러한 논의들을 바탕으로 제주섬의 생태문화적 요소들을 좀더 보완하고 그것들이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던지는 메시지를 찾아보려고 시도하였다.

최근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제주섬의 전통문화를 새롭게 조명하고 창조적으로 해석하려는 시도들이 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제주문화의 정체성을 조명하고 그것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자연, 역사, 사회 및 생활, 신앙·언어·예술 등 4개 분야에서 제주문화 상징 99개를 발굴하고, 그 가운데 10개를 대표 제주문화상징으로 선정한 것이다(『제주문화상징』, 2008 참조). 그리고 학계와 업계에서는 그것을 상품화하고 산업화하려는 문화컨텐츠 사업을 활발하게 벌이고 있다. 낯선 체험을 강조하는 문화산업사회에서는 다른 곳에서 찾기 힘든 독특한 문화는 큰 자산이 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매우 의미있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2007년부터 “나를 바꾸면 제주가 새로워집니다”라는 구호로 내걸고 벌이고 있는 뉴제주운동이다. 뉴제주운동의 기본이념은 ‘자존’, ‘개방’, ‘상생’ 등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완성, 국제자유도시 건설, 세계평화의 섬 구축 등 새롭게 변화되는 환경에 걸맞게 범도민 사회개혁운동을 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닫힌 체계로서의 제주섬에서 형성된 전통문화가 사람·상품·자본이동이 자유로운 국제자유도시 건설이라는 목표에 곧바로 접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공동체의 범위를 제주섬에서 지구적 차원으로 넓혀서 본다면, 제주섬 전통문화 속의 깃든 ‘자연외경’, ‘자연순응’, ‘자원순환’, ‘소박실용’, ‘상부상조’, ‘자립공존’ 등의 정신이 뉴제주운동의 기본이념인 ‘자존’, ‘개방’, ‘상생’ 등과 반드시 상충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에 대한 심층적

논의는 차후의 과제로 남긴다.

지역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이라는 말이 있다. 하지만 지역적인 것이 라 해서 곧바로 세계적인 것이 될 수는 없다. 지역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으로 되려면, 독특하면서도 동시에 인류 보편적 가치를 지녀야 한다. 다시 말해서 그것들이 비록 지금까지는 특정지역에 국한된 것이었지만, 그것을 잘 변용하면 어디에서나 보다 높은 삶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제주의 전통문화도 세계적인 것으로 되려면 독특함만 강조해서는 안 되고, 그 속에 깃들어 있는 인류 보편적 가치를 찾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 글의 목적은 “우리 인류가 하나뿐인 지구에서 어떻게 높은 삶의 질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느냐?”라는 물음에 대해 제주섬의 전통문화가 제시할 수 있는 답들을 찾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가 제주섬의 전통문화 속에서 보편적 가치로 취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생태적 지혜라 할 수 있다. 제주섬의 전통문화를 잘 들여다보면 위기에 처한 경제와 생태와 공동체를 동시에 살릴 수 있는 단초를 얻을 수 있다.

논자는 제주섬의 전통문화를 생태문화의 측면에서 바라보고, 그것들이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던지는 메시지를 추출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론 1절에서는 민간신앙에 깃든 ‘자연외경’, 2절에서는 친구간 풍속에 깃든 ‘자연순응’, 3절에서는 돛통시를 중심으로 한 ‘자원순환’, 4절에서 갈옷 속의 ‘소박실용’, 5절에서는 수놓음문화를 중심으로 한 ‘상부상조’, 6절에서는 분가제도와 켤당문화 속에 나타난 유연한 ‘자립공존’ 정신의 현대적 의의를 살펴볼 것이다.

II. 본 론

근대화 과정에서 전통적 삶의 방식을 낡고 부끄러운 유산으로 여기고, 전통문화를 파괴하려는 시도들이 있었다. 제주섬도 예외가 아니어서 1960, 70년대에 행정관청에서는 제주의 전통문화를 폄훼하면서 무속 행위, 돛통시, 신구간 등을 대표적 악습으로 규정하여 적극적으로 폐지 운동을 펼친 적이 있다. 하지만 강력한 폐지운동에도 불구하고 제주사람들에게 깊게 뿌리내린 문화를 하루아침에 없앨 수는 없었다. 이처럼 제주섬의 전통문화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근대적 합리성에 비취본다면 비합리적이라 할지라도 거기에는 그 나름의 합리적인 측면이 있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근대적 합리주의 세계관으로 본다면 신비적이거나 비합리적인 것으로 보여도, 그 속에는 과학보다 더 높은 차원의 생태적 지혜가 들어 있다는 것이다.

1. 민간신앙에 깃든 ‘자연외경’ 정신

오늘날 제주섬에는 지역주민들이 찾는 신당(神堂)이 392개나 남아있다(조성윤 외, 2003: 97쪽; 하순애, 2008: 7쪽; 강정효, 2009 참조). 그리고 지금도 많은 제주사람들은 일상생활에서 사고가 났을 때 뉘을 드리고, 집을 새로 지었을 때 성주굿을 하며, 장례를 치른 날 밤에는 귀양풀이를 하고, 굿판을 벌일 때 심방[巫覡]들은 신들의 장편 서사시인 본풀이[巫歌]를 구송한다(진성기, 2008: 40-46쪽). 이처럼 제주섬에는 무속 신앙이 박제화 되지 않고 생생하게 살아 있다. 그리고 인간을 둘러싼 모든 것에 신이 깃들어 있다는 제주사람들의 속신(俗信)은 “제주에는 옛날부터 음사(淫祀)를 숭상하여 산의 숲, 하천과 못, 언덕, 무덤, 물가

등의 나무나 돌에 신사(神祀)를 만드는 풍속이 있다.”는 기록에서도 확인된다. 그리고 이 기록은 조선 중기(1530년)의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수록된 이후로 제주에 파견되었던 목사(牧使)나 유배인의 여러 제주풍 토지들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고찬화, 2004: 27쪽, 36쪽, 40쪽, 51-54쪽). 산, 숲, 하천, 바다뿐만 아니라 나무, 바위, 동굴 등과 같은 자연을 신령스런 존재라는 믿는 제주섬의 민간신앙은 오늘날까지도 지역민의 종교로서 생활세계를 지배하고 있다.

이처럼 제주섬이 무속신앙이 강한 데는 온난다습한 기후와 열악한 자연환경도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제주섬은 일최저기온 0℃, 일평균기온 5℃ 이하로 내리가는 경우가 거의 없어 기상학적 겨울이 없는 섬이다(『한국기후편람』, 1985: 45쪽, 373쪽; 『제주도지 1권』, 1993: 78-79쪽). 따라서 제주섬은 방역(防疫)이 제대로 되지 않던 시절엔 미생물 증식으로 질병의 위험이 늘 도사리고 있었고, 실제로 질병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게다가 태풍의 길목에 위치한 화산섬 제주는 삼재(三災)에 늘 시달려야 했다. 즉 연중행사로 불어 닥치는 태풍은 생활 터전을 초토화시키기 일쑤이고, 오래 지속되는 장마는 적기에 농작물을 수확하기 어렵게 하며, 토양은 보습력이 약해서 가뭄에 취약했다.

이처럼 일 년 내내 무서운 질병과 혹독한 재해에 시달리며 살아야 했던 제주사람들이 인간으로서의 어찌할 수 없는 초월적 존재를 믿고 의지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그들은 극심한 자연재해를 신들이 내리는 재앙으로 여겼고, 질병을 신의 노여움 때문에 생긴 동티(動土)로 여겼다. 그리고 산천초목은 물론이고 우리를 둘러싼 모든 것에 신령스런 힘이 깃들어 있다고 경외하게 되었다. 그들에게 자연은 단순한 무기물과 유기물의 집합체가 아니라, 생명과 의지를 가진 존재들의 집합체였다. 그러한 제주사람들의 신앙은 근대적 관점에 비춰볼 때 분명 비합

리적이다. 하지만 동식물뿐만 아니라 바위, 오름, 하천, 바다 등도 신령스런 존재라는 민간신앙으로부터 우리는 인간중심주의를 넘어서 인간과 자연과의 조화를 이루는 생명중심적(또는 생태중심적) 사고를 추출해낼 수 있다.

현대인들이 근대적 합리주의에 따라 자연을 거대한 기계로 이해하고, 편협한 인간중심주의에 입각하여 마구잡이식으로 개발하게 되면서, 자연은 생명체의 안식처로서의 기능을 잃어가고 있다. 따라서 이제 더 이상 자연과 생태계의 파괴를 방치할 경우, 현세대의 삶의 질이 악화되는 것은 물론이고 미래세대들의 삶은 더욱 힘들어질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한다면, 지금은 인간중심적·기계론적 사고를 넘어서는 대안적 사고가 절실히 필요하다. 다시 말해서 인류의 안녕을 위해 생태계를 복원하고 보전해야 하는 새로운 합리적 근거, 즉 생태적 합리성의 논리가 요청된다는 것이다. 이에 박희병은 그의 『한국의 생태사상』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근대 이전의 한국사상 속에 깃들어 있는) 생태적 관점이 비합리적인 사유의 소치이거나 현실적 사유 능력이 부족한 결과라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중요한 것은 그것들이 근대 이후 우리가 망각해 가던, 사물을 보는 또 하나의 다른 관점, 즉 자연과 인간을 분리하지 않고 내면적으로 깊이 결부시켜 파악하는 관점을 일깨워준다는 것이다. 자연과학에 뿌리를 두고 있는 서구적 합리주의 세계관에서 본다면 생태적 관점은 신비주의적이거나 비합리적인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을지 모른다. 그러나 생태적 관점에서 볼 때 합리주의적 세계관은 협소하거나 편협하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 사람(人)과 사물(物)의 근원적 평등에 대한 주장은 과학보다 더 높은 차원이라 할 ‘생태적 지혜’의 차원에 속한다. 이런 지혜의 차원에서 본다면 다 같은 자연 내 존재로서 물아(物我)의 근원적 동일성에 대한 주장은 ‘진실’이고 ‘합리’일 수 있을 터이다. 한국사상의 전통을 일별하면서 살핀 이런 생태적 지혜

는 우리가 장차 협소한 과학적 합리성을 변증법적으로 지양하면서 ‘생태적 합리성’을 모색하거나 원용하는 데 참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생태적 합리성이 근대적 합리성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일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근대적 합리성의 기저에 놓인 기계론적 세계관을 극복하고, 인간의 이성을 ‘열린 이성’으로 가져가는 방향으로 작동해야 한다는 점만큼은 분명해 보인다(박희병, 1999: 34-35쪽).

그리고 심층생태주의에서는 근대적 합리주의에 바탕을 둔 인간중심주의를 비판하면서 인간과 자연에 대한 기존의 철학적 관점을 바꿔서 새로운 윤리, 새로운 형이상학, 새로운 종교를 찾아야만 생태위기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F. 카프라 외, 1997 참조). 그들은 인간과 자연이 하나라는 것을 깨닫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노장사상의 ‘도(道)’나 선불교의 ‘깨달음’, 그리고 기독교의 ‘영성(靈性)’ 등에 호소하기도 한다. 그러한 맥락에서 본다면 제주섬의 민간신앙 속에 들어 있는 ‘자연외경’ 정신도 인간중심주의를 넘어서서 생명(생태) 중심주의를 확산시키는데 어느 정도 기여할 것이다.

아직도 많은 제주사람들은 마을마다 남아 있는 신당을 민간신앙의 성소(聖所)이자 본향(本鄉)으로 인식하면서, 산천초목과 삼라만상을 살아 있을 뿐만 아니라 인간과 서로 감응(感應)한다고 믿는다. 그러한 민간신앙에는 인간을 우주 자연의 일부로 느끼는 원초적 정서를 회복시키고, 편협한 인간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생명(생태) 중심주의로 나아가게 함으로써, 눈앞의 개발이익만 쫓는 개발지상주의에 대한 근본적 성찰을 촉구함으로써 생태계를 보전하고 생태위기를 해소하는 긍정적 요소가 들어 있다. 따라서 인간을 포함한 삼라만상이 서로 연계되어 있다는 믿음과 산천초목을 경외(敬畏)하던 자연외경 정신을 단순히 미신이라고 폄훼하기보다는 근대적 합리성을 변증법적으로 지양하여 인간과

자연을 동시에 살려나가는 ‘생태적 합리성’을 모색해 나가는데 원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신구간 풍속 속의 ‘자연순응’ 정신

제주섬에는 본토와는 다른 ‘신구간(新舊間)’이라는 독특한 세시풍속이 있다. 오래 전부터 제주의 민간에서는 다음과 같은 속신 때문에 변소 개축, 집수리, 이사 등을 ‘신구간, 즉 대한(大寒) 후 5일부터 입춘(立春) 전 3일 사이에만 하는 풍습이 있다.

대한 후 5일에서 입춘 전 3일 사이에 옥황상제의 명을 받아 지상의 일을 관장하던 신[舊官]들이 하늘로 올라가고 새로 임명받은 신[新官]들이 내려 오므로, 이 기간[新舊間]에는 지상에 신이 없기 때문에 신이 두려워서 못했던 일들을 해도 아무런 탈이 없다. 그러나 평상시에 그러한 일들을 했다가는 동티[動土]가 나서, 그 집에는 큰 가환(家患)이 닥치고 액운(厄運)을 면치 못하게 된다(진성기, 1967: 211쪽).

그러한 속신에 바탕을 둔 신구간 풍속은 개명천지한 오늘날까지 지켜지고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민속연구가들은 신구간의 연원을 “대한 후 5일부터 입춘 전 2일 사이는 신세(新歲) 구세(舊歲)의 관신(官神)이 교승하는 때이므로, ... 집을 짓고 장사를 지내도 불리함이 없다.”는 ‘세관교승(歲官交承)’에서 찾는다. 그러한 ‘세관교승’은 조선후기 관청과 민간에서 널리 사용되었던 도참서인 『천기대요』와 가정보감인 『산림경제』 등에 다음과 같이 실려 있다.

대한 후 5일부터 입춘 전 2일은 곧 신구세관(新舊歲官)이 교승하는 때이

다. 입춘일을 범하지 말고, 반드시 황도일(黃道日)과 흑도일(黑道日)을 가려서, 먼저 조상의 신주에게 길(吉)한 방향으로 피해서 나가도록 청해야 한다. 이때에는 산운(山運)에도 거리낌이 없어 제반 흉살이 극복되므로, 임의대로 가택을 짓고 장사를 지내도 불리함이 없다.

大寒後五日 立春前二日 乃新舊歲官交令之際 不犯立春日 須擇黃黑道 先請祖先神主出避吉方 不忌山運 被克及諸般凶殺 起造葬埋 任意爲之 無不利(原本 影印版 『新增參贊秘傳 天機大要』, 1981: 131-132쪽)

歲官交承(不犯立春日 須擇黃黑道)大寒後五日 立春前二日 乃新舊歲官交令之際 其間善擇日時 不忌山運 被克及諸般凶殺 起造葬埋 任意爲之 無不利(국역 『산림경제 I』: 11-12쪽, 국역 『산림경제II』: 199-203쪽)

위의 두 인용문에서 알 수 있듯이 신구간 풍속과 ‘세관교승’과 전혀 무관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천기대요』와 『산림경제』 등이 조선 시대 후기에 전국적으로 널리 읽혔음에도 불구하고 조선후기의 세시풍속을 다룬 서적들 어디에도 신구간 풍속을 이야기하는 곳이 없다(김성원, 1994; 『조선대세시기II』, 2003 참조). 그리고 해방 이전 중앙의 신문과 잡지(『한국세시풍속자료집성[신문·잡지편, 1876-1945]』, 2004 참조)에도 신구간 풍속이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 그런 점에 비춰볼 때 신구간 풍속은 제주섬에서만 행해져온 것으로 볼 수 있다(윤용택, 2008; 1장, 4장 참조).

‘세관교승’의 내용이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졌는데도 육지에서는 신구간이라는 개념조차 없는 이유는, 그 시기가 엄동(嚴冬)이어서 이사를 하거나 집을 수리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신구간(대한 후 5일에서 입춘 전 3일까지), 즉 1월 25일경부터 2월 2일경까지는 전국적으로 가장 추운 시기이다. 그리고 신구간은 제주섬에서도 일 년 중 일평균기온이 5℃ 미만으로 내려가는 거의 유일한 기간으로, 찬바람

까지 붙어 일 년 중 가장 매서운 추위를 느끼게 한다. 하지만 제주섬에서는 입춘을 기점으로 다시 일평균기온이 5℃를 넘어서면서 생명활동이 활발해지기 시작한다.

〈표1〉 신구간 전후 절기의 일평균기온(1970-2000년 기준, 단위 °C)

절기(양력)	지역	서울	광주	완도	제주
소한 (1/6,7)		-1.5	1.3	4.0	6.8
대한 (1/20,21)		-3.2	-0.2	1.9	5.1
신구간 (1/25~2/2)		-3.2	-0.3	2.0	4.7
입춘 (2/4,5)		-1.6	0.7	2.7	5.3

고온다습한 기후로 늘 세균 감염에 시달려야 했던 제주사람들에게 신구간은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유일한 기간이었다. 평소에 변 소개축, 집수리, 이사 등을 하면 동티가 나는데 신구간에 하면 별 탈이 없다는 속신은, 평소에는 세균감염 가능성이 높아서 못했던 일들도 미생물의 활동이 둔화되는 가장 추운 시기인 신구간에 하면 괜찮다는 합리적 근거와도 부합된다.

그리고 자연의 순리에 따라 농사짓던 시절에 제주사람들에게 신구간은 계절의 순환 과정에서 묵은철에서 새철로 넘어가는 기준이었다. 가장 추운 시기인 신구간은 제주섬에서 단순한 농한기가 아니라 그동안 미뤄뒀던 집안일을 바빠 마무리해야 하는 시기였다. 척박한 자연환경을 이겨내기 위해서 제주사람들은 식물 성장이 가능한 시기에는 농사에 전념해야 했고, 농사 외적인 일은 신구간을 이용해야 했다. 그런 점에서 신구간 풍속은 자연의 흐름을 포착하여 거기에 순응하려 했던 제주사람들의 지혜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

현대인들은 철이 없다. 여름철엔 냉방기를 틀고 겨울과일을 먹으면서 지내고, 겨울엔 난방기를 틀고 여름과일을 먹으면서 지낸다. 그리고 자연에 역행하면서 엔트로피를 최대로 높이면서 살아가는 것이 마치 발전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계절을 거스르는 대가로 삶을 상당한 고비용을 지출하고 있고, 엄청난 화석 에너지를 고갈시키면서 지구온난화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인류가 지속가능한 사회로 나아가려면 되도록이면 에너지를 덜 쓰거나 재생가능한 에너지에 의존하는 저엔트로피 사회가 되어 한다. 우리는 친구간 풍속을 통해서 비록 힘들기 하지만 제철에 어울리는 삶을 살려고 노력했던 선인들의 의지를 읽을 수 있다.

3. 돛통시 문화 속의 ‘자원순환’ 정신

제주섬 사람들은 열악한 자연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적게 쓰고 적게 버리는 즈냥정신을 가지고 살아왔다. 근면절약을 강조하는 즈냥정신은 어려운 환경에서 버티고 살아남게 한 제주도민의 정신임에 틀림이 없다. 그리고 오늘날 많은 환경운동가들은 자발적 가난을 부르짖고, 지속가능한 삶을 살기 위해 적게 쓰고 적게 버릴 것을 주장한다. 여기서 지속가능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되는 ‘작은 것이 아름답다’는 주장은 제주의 즈냥정신과 다를 바 없다. 그러나 이미 물질적 풍요로움을 경험한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즈냥정신을 가지고 생태적으로 살아라”라는 주장을 “생태적 삶 = 적게 쓰고 적게 버리는 삶 = 가난한 삶 = 불편한 삶 = 삶의 질이 낮은 삶”으로 받아들인다. 그리고 실제로 일부에서는 생태적 삶을 강조하는 환경운동에 반감을 드러내면서 생태사회로 나아가는 것을 거부하기도 한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생태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보다 많은 대중들이 수긍할 수 있는 설득력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지속가능한 생태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적게 쓰고 적게 버리는 즙낭정신만 가지고는 부족하고, 자원고갈과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도의 지혜가 필요하다. 전통적 농경사회에서는 농업부산물뿐만 아니라 인분마저도 완벽하게 가축사료나 거름으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환경오염 문제가 없었다. 반면에 현대인들은 엄청난 양의 산업폐기물과 생활쓰레기를 양산하고, 인분을 혐오스런 악성 폐기물로 여겨 분뇨하수처리장으로 보낸다. 그 과정에서 수세식 화장실에서 맑은 수도물로 똥오줌을 씻어 내리고 그것을 다시 정화하면서 자원을 낭비하고 하천과 바다를 오염시킨다.

그런 점에서 1980년대 후반까지 지속되었던 제주섬의 ‘똥통시’는 지속가능한 삶에 대한 여러 가지 생태적 지혜를 제공해준다. 제주섬의 똥통시는 일부에서 알려진 것처럼 단순히 인분을 처리하는 변소가 아니다. 돼지를 키우는 똥통시는 인분을 처리할 뿐만 아니라, 음식물쓰레기와 설거지물을 사료로 이용하고, 농사를 짓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부산물들도 사료나 똥거름으로 활용함으로써 폐기물들을 완벽하게 유용한 자원으로 되돌려 놓았다. 그리고 소나 말의 우리에서 나온 똥 썩은 거름들도 주기적으로 똥통시에 던져서 돼지의 똥오줌과 합쳐져 숙성됨으로써 질 좋은 똥거름으로 되었다.¹⁾

1) ‘똥통시’가 제주도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똥통시’는 이미 2500여년 전부터 있어 왔고, 지역적으로도 중국의 만주에서부터 한반도와 제주도, 일본의 오키나와, 필리핀의 루손섬 등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영국의 맨체스터와 미국의 뉴욕에서도 19세기 직전까지 돼지를 이용하여 인분을 처리했다는 기록도 있다(송성대, 1998: 458쪽). 그러나 제주도의 똥통시는 단순히 인분을 처리하는 ‘똥간’이 아니라 당시의 산업폐기물이라 할 수 있는 농업부산물과 소나 말의 우리에서 나온 똥 성숙된 퇴비도 숙성시켜 똥거름으로 만드는 장소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다른 지역의 똥통시에 비해 크다(윤용택, 2004: 140쪽).

돼지는 사람 똥을 밥으로 먹는다. 그리고 돛통시에서 돼지는 자신의 똥오줌이 뒤섞인 바닥에 깔린 짚과 잡초들을 밟는다. 돼지의 이러한 행위는 사람들에게 농사를 지을 수 있게 해주는 퇴비 생산을 의미한다. 퇴비를 직접 먹을 수 없는 사람은 그 퇴비를 ‘먹을 수 있는’ 식물에게 먹이고, 퇴비를 먹은 식물이 생산한 것을 먹는 것이다. 결국 사람은 식물을 거쳐서 돼지 똥이 생산한 퇴비를 간접적으로 먹는다고 할 수 있다. 사람 똥은 돼지의 밥이 되고, 돼지 똥은 사람의 밥이 되는 현상, 이것이 바로 생태학적 물질순환과 에너지 유동 현상이다(전경수, 1997: 130쪽).

지구에서 인류가 얼마나 지속가능할 지는 자원고갈과 환경오염을 얼마나 줄이느냐에 달려 있다. 건강한 생태계는 ‘생산자(식물) → 소비자(동물, 인간) → 분해자(세균) → 생산자(식물)’이라는 완벽한 순환체계를 이룸으로써 무궁무진하게 지속가능하다. 그러한 순환원리를 잘 활용한 제주섬의 돛통시는 인간, 돼지(동물), 식물(보리), 폐기물(인분, 돈분, 농업부산물 및 생활쓰레기), 돛거름(세균) 등 인간과 생태계를 이어주고 순환시키는 중심(hub)이었다.

그러나 돛통시는 유기물을 분해하는 세균들이 득실거리는 곳으로 무서운 질병이 생겨날 수 있는 원천이다. 그렇기 때문에 세균의 온상인 돛통시는 부엌과 가까이할 수 없는 곳이었고, 함부로 고쳐서도 안 되고 돌담 하나를 옮기는데도 신중을 기해야 했다. 하여 제주섬에는 돛통시와 관련된 금기가 많았고, 그에 대한 합리적 설명이 부족하던 시절엔 신화들을 통해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돛통시를 경계하도록 했다.

예를 들면 문전본풀이에 등장하는 남선비의 본처(여산부인/조왕)와 후처(노일저대 귀일의 딸/변소신)의 상극관계 때문에(현용준, 2005: 127~130쪽), 부엌과 돛통시는 서로 가까이 할 수 없다든가, 돛통시 수리는 반드시 지상을 관장하는 신이 하늘로 올라가서 없는 신구간에 해야 한

다는 풍속 등은 좋은 예이다. 그러한 신화와 풍속은 dots통시의 세균들이 감염되는 것을 막아야 뒤탈이 없다는 합리적 근거와도 잘 부합되는 속신이라 할 수 있다.

생태사회는 폐기물마저도 귀한 자원으로 순환시키는 사회이다. 옛 제주사람들은 dots통시를 통해 혐오스런 인분은 물론이거니와 설거지물이나 먹다 남은 음식물을 귀한 돼지먹이로 바꿔놓았다. 그러기에 dots통시는 인분을 처리하는 ‘뒷간’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농업부산물과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쓰레기 매립장’이자 생활하수를 처리하는 ‘하수종말처리장’이면서, dot거름을 생산하는 ‘유기질비료공장’이고, 대소사에 쓸 돼지고기를 제공해주는 ‘돼지사육장’ 역할을 하였다(이기욱, 2003: 129-130쪽; 전경수, 1997: 132쪽). 이처럼 dots통시는 생태적 삶의 중심이었고, 더 많은 생산과 풍요로운 삶을 약속해주는 장소였다.

지금도 많은 생태주의자들은 ‘엔트로피 법칙’은 불변의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뿐인 지구’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작은 것이 아름답다’는 가치관을 가지고 자원을 적게 쓰고 쓰레기를 줄이면서 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주섬의 dots통시는 그러한 소극적 생태주의를 넘어서 ‘순환하는 것은 아름다우면서 풍요롭다’는 적극적 생태주의의 길을 열어주고 있다. 다시 말해서 제주섬의 dots통시 문화는 생태적 삶은 “적게 쓰고 적게 버리는 삶 = 가난한 삶 = 삶의 질이 낮은 삶”이라는 소극적 관점으로부터 “순환하는 삶 = 풍요로운 삶 = 삶의 질이 높은 삶”이라는 적극적 관점으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준다.

제주섬의 dots통시는 “생태계의 순환원리에 따라 살면, 높은 삶의 질을 유지하면서도 지속가능한 생태사회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적극적 생태주의의 좋은 모델이면서, 폐기물들은 처치 곤란한 그 무엇이 아

나라 잘만 활용하면 우리에게 풍요로움을 가져다주는 귀중한 자원이 된다는 생태적 지혜를 보여준다.

4. 갈옷 속에 깃든 ‘소박실용’ 정신

제주사람들은 무명옷에다 풋감을 뺀 짜낸 감물들인 갈옷을 즐겨 입었다. 갈옷은 1960년대까지 제주의 일반서민들이 가장 많이 애용하던 노동복이자 일상복이었다. 갈옷은 제주사람과 제주의 감, 물, 그리고 작렬하는 띄약별이 합작하여 만들어낸 뛰어난 지혜의 산물로서, 제주의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에 알맞게 최상의 조건들이 구비된 소박하면서도 실용적인 옷으로 제주문화 10대 상징 가운데 하나로 선정되었다(『제주 문화상징』, 2008: 72쪽, 298쪽).

갈옷은 가장 현실적인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제주사람들은 갈옷의 재료를 가까운 주변에서 구했고, 그것들을 별다르게 가공하지 않았다. 감은 그저 뺀아서 감물을 내면 되었고, 감물들일 천은 어떤 것이나 가능했고, 평소에 입는 옷도 감물을 들이면 그대로 갈옷이 되었다. 갈옷은 화산섬 제주의 흙과도 유사하기 때문에 더러워져도 눈에 띄지 않고, 빨아서 손질을 하는 경우에도 별다른 수고를 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갈옷은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것을 중시하는 제주사람들에게 가장 친숙한 옷이었다.

갈옷은 통기성이 좋아 시원하고, 땀이 잘 배지 않을 뿐만 아니라 땀이나 비에 젖어도 몸에 잘 달라붙지 않으며, 빨리 건조되어 매우 실용적이다. 그리고 감물을 들인 천은 질길 뿐만 아니라 젖은 채 며칠을 두고도 썩지 않은 장점이 있다. 뿐만 아니라 감물을 들이게 되면 뽀뽀해지고 강도가 강해져서 가시덤불에 걸려서 찢겨지는 일도 드물고, 오물이 붙

었다가도 털면 잘 떨어진다. 그리고 갈옷은 옷감이 감 염색으로 코팅되어 있어서 더러움도 덜 타고, 더러워진 다음에도 맹물에 주물럭거리려 행구어 털어 말리면 그만이니 참으로 편리하다(위의 책, 300쪽). 그리고 오래 입게 되면 뻣뻣한 기가 죽어서 시원한 촉감도 덜하고 색도 흐려지면서 칙칙하게 변하게 되는데, 그것을 다시 감물을 들여 바래면 새것과 비슷한 맛을 낼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뿐만 아니라 입다가 후줄근해진 삼베나 모시옷도 감물을 들여 입었고, 특히 낡은 모시옷에 감물을 살짝 들인 것은 ‘재생 일품거리’였다(위의 책; 72쪽). 이처럼 제주의 갈옷은 소박하면서도 경제적이고, 위생적이면서도 실용적이다.

갈옷의 이러한 장점 때문에 갈옷은 보통 서양의 ‘청바지[블루진]’²⁾에 비유되기도 한다(『제주도지5』, 2006: 49-50쪽). 그러나 갈옷은 청바지에 비해 훨씬 많은 장점이 있다. 울이 가늘고 질긴 능직면(綾織綿)인 ‘진(gean)’은 겉옷을 만드는 옷감으로 그 용도가 한정되어 있다. 반면에 다양한 천에 감물을 들여 만드는 갈옷은 그 응용 여하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갈옷 개발이 가능하다. 그리고 면으로 된 기성복도 감물만 들이면 갈옷으로 탄생되기 때문에, 얼마든지 여러 가지 응용갈옷이 탄생될 수 있다. 실제로 시대에 따라 여러 유형의 옷에 감물 들이는 것이 응용되었다. 일제 강점기에는 여성노동복인 ‘뽕뺨’에, 1970년대 이후에는 ‘예비군복’에 감물을 들여 노동복으로 입었고(『제주문화상징』, 2008: 76

2) 청바지[블루진]은 1930년대에 리바이 스트라우스(Levi Strauss)가 광부들의 바지가 쉽게 헤진다는데 착안하여 질긴 천막용 천으로 바지를 만든 것이 시초이다. 질기고 튼튼한 청바지는 일반인에게까지 실용성을 인정받아 널리 보급되었고, 미국 서부 영화의 주인공이 청바지를 입고 나오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유행이 되었다. 원래 작업복이었던 청바지가 최근에는 전 세계 청년남녀 사이에서 평상복과 레저웨어 등으로 계절을 가리지 않고 착용되고 있다. 네이버백과, 위키백과 ‘청바지[블루진]청바지(gean pants/geans)’ 참조.

쪽), 최근에는 낡은 ‘남방셔츠’에 감물을 들여 노동복으로 입는 이들도 있다.

그리고 1980년대부터는 감물을 들여 바랜 옷감으로 한복과 서양복을 절충하여 만든 개량갈옷이 등장하였고, 최근에는 갈옷으로 만든 양복까지 등장하고 있다. 그런 점에 비춰볼 때 갈옷은 블루진과는 달리 무궁무진하게 응용할 수 있어서 블루진 이상으로 세계화 가능성이 높다. 갈옷이 세계인들이 애용하는 옷으로 되기 위해서는 작업복에서 의례복까지, 내복에서부터 겉옷까지, 단순 소박한 전통갈옷에서부터 최고급의 패션갈옷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가격에서도 아주 저렴한 것에서부터 천문학적 가격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소비자의 취향과 욕구를 충족시켜줄 있는 다양한 갈옷들이 개발되어야 한다.

그리고 최근에는 갈천이 더 이상 갈옷을 만드는 데만 국한되지 않고 모자, 가방, 지갑, 방석, 쿠션, 이불, 토슈 등 다양한 패션과 웰빙을 겸한 상품으로 개발되고 있다(위의 책, 76쪽). 이처럼 갈옷은 단순 소박하면서도 실용적이고, 주변의 소재를 잘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친환경적이다.

5. 수놓음 문화 속의 ‘상부상조’ 정신

척박한 환경에서 살던 제주사람들은 자연에 순응하고 폐기물을 자원을 순환하는 것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었다. 적은 인력과 부족한 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상부상조가 필요했다. 그들은 일시에 많은 노동력을 필요하여 혼자하기 힘든 일은 함께 나눠서 치렀고, 여럿이 해야 될 일을 혼자서도 할 수 있을 때는 순번을 정해서 돌아가면서 함으로써 인력을 절약했다. 그리고 대소사를 치르는

데 필요한 재화나 혼자서 마련하기 힘든 물품들은 공동으로 마련해서 돌려씀으로서 자원을 절약했다.

‘수눌음’은 품앗이에 해당하는 제주어로, 혼자하기에 버거운 일이 있을 때 집단을 이뤄 순번을 정하여 돌아가면서 돕는 관행을 말한다. 수눌어 일하게 되면, 먼저 일을 한 쪽에서는 적기를 놓치지 않고 급한 일을 처리할 수 있게 되고, 일을 해준 쪽에서는 한가한 시기의 노동력을 저축하였다가 바쁠 때에는 언제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농사일뿐만 아니라 온 동네가 서로 힘을 합쳐서 큰일을 치르는 것도 일종의 수눌음이다. 이를테면 한 사람이 집을 지을 때, 목수가 기둥과 서리를 다 준비해놓으면, 나머지 일은 동네에서 각 집안에서 남녀 한 사람씩 나와 일을 돕는다. 여자들은 물을 져 날라 흙질을 하게 해주고, 남자들은 담벽을 쌓고, 흙질을 하고, 천정을 대나무로 얹고, 지붕을 덮어 하루에 집의 외곽을 완성시켜준다(현용준, 1986: 62-63쪽). 이 때 주인은 동네잔치 비슷하게 점심과 술을 대접하였고, 그러한 과정에서 이웃 간에 정이 돈독해지고 유대감도 강화되었다.

수눌음은 불필요한 노동력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도 행해졌다. 제주섬에서는 봄 또는 조 파종이 끝난 여름엔 우마(牛馬)를 목야지에 방목하였다. 이 때 10~20호 정도가 결합해서 매일 한 사람씩 교대로 소를 돌보는데, 이를 ‘번쇠[番牛]’라 한다(이기욱, 1995: 128쪽). 당번인 ‘테우리[牧者]’는 도시락을 싸서 하루 종일 소를 돌본다. 그리고 이튿날은 다음 당번이 소를 돌보게 된다. 이런 ‘번쇠’ 먹이기는 늦가을까지 계속되는데, 가을 일이 끝나고 날씨가 추워지면 ‘번쇠’는 해산하고 집에서 사육된다. 이처럼 부족한 노동력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행해졌던 ‘번쇠’도 일종의 수눌음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제주사람들은 혼자 마련하기에 어려운 물품이나 재화를 마련

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결사체를 만들었다. 이러한 결사체를 제주어로는 보통 ‘제’라고 하는데, ‘접(接)’, ‘계(契)’, ‘회(會)’ 등과 혼용해서 쓰기도 하였다. 이러한 결사체는 크게 재화증식이나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하는 것과 인간관계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그 목적과 기능들이 뚜렷하게 분리되는 것이 아니며, 처음에는 재화증식이나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구성되었다가 그 목적이 달성되면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전환되거나 그 역이 되는 경우도 있다(김석준, 1993: 17쪽).

연자매는 곡식 알갱이를 떨구고 쪄고 빵은 농경사회의 필수시설인데, 제주섬에서는 이를 돌방에, 돌뱅이, 돌그레 등으로 불렀다. 밭농사가 중심이었던 제주섬은 보리와 조가 주된 식량이었기 때문에 본토에 비해 연자매의 분포 비율이 매우 높았다(김영돈, 1984: 324-332쪽). 그러나 연자매는 개인 부담으로는 만들고 유지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그것을 만들고 운용하기 위해서 이웃끼리 20~30여호씩 모여 계가 조직되었다(현용준, 1986: 57-58쪽). 그러한 연자매계는 계원들 사이에 부모나 조부모의 삼상(三喪)이 닥치거나, 가옥을 신축할 때 쌀 등을 모아 부조하는 기능도 지녔기 때문에 제주 농어촌 사회에서는 친족 다음으로 유대 깊은 집단이었다(김영돈, 1984: 336, 342쪽). 연자매계는 생활필수품이지만 개인이 관리하기 힘든 것들을 공동소유를 통해 효율적으로 관리하면서 친목까지 도모하던 지혜를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이 외에도 제주사람들은 상여와 장사(葬事)용 도구를 공동으로 제작하여 사용하고 관리하던 화단계, 결혼식 때 필요한 신랑과 신부의 예복과 가마 등을 구입하고 돌려가면서 사용하던 관복계, 처녀들이 시집갈 때 차리고 갈 옷장을 마련하던 옷장계 등 다양한 계를 조직했다가 큰일을 치러냈다. 이처럼 제주사람들은 수눌음과 계 등의 상호부조를 통해

부족한 인력과 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면서 이웃들과 친척 이상으로 동고동락을 했다. 그렇게 볼 때 제주사람들이 친척관계가 아니라도 이웃 어른을 ‘삼촌(삼촌)’이라 부르고, 손아래 사람을 ‘조케(조카)’라 부르게 된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니다.

이러한 수눌음과 계는 현금 없이도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거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다. 최근 경제의 양극화로 소득불균형이 심해지면서 일부 상류층을 제외한 대다수 국민들의 구매력이 떨어지고 소비가 둔화되고 있고, 그러한 사태는 경제침체를 가져와 일자리가 줄어들어서 경제위기를 낳고 있다. 일찍이 경제침체와 공황을 심각하게 체험한 여러 나라에서는 대안경제의 하나로, 현금(국가통화)을 사용하지 않고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거래하는 지역통화 시스템(LETS/Local Exchanging and Trading System)을 시도하고 있는데, 전 세계의 4000여개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다(윤용택, 2005: 78쪽). 지역통화의 기본적 구상은, 현금을 사용하지 않고 생산물이나 서비스를 교환한다는 것이다. 그러한 지역통화를 지금까지 여러 곳에서 운영해본 결과 “지역통화를 통해서 현금 없이도 자신들이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구입할 수 있게 되면, 돈이 부족하다는 의식이 없어져서 경쟁하는 일이 줄어들고, 시간적으로 쫓기지 않아 정신적 여유가 생기며, 인간관계도 신뢰와 협력관계로 바뀌고, 공동체 의식이 강화되어 구성원들 간에 정서적 유대감이 형성된다.”는 보고들이 나오고 있다(윤용택, 2005: 96쪽).

수눌음은 동일 품목의 재화(물품)와 서비스(일)를 주고받는데 반해, 지역통화는 종류가 다른 재화나 서비스도 주고 받는다. 그러나 지역통화는 현금을 주고받지 않고 상부상조를 통해 재화와 서비스를 거래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인다는 취지에서 수눌음과 서로 비슷하다. 옛 제주사람들이 수눌어가면서 노동력을 나누었듯이, 오늘날에도 다양한 재능을

가진 이들이 모여 서로의 능력과 재능을 나누고 각자에게 남아도는(또는 불필요한) 재화를 필요한 사람에게 서로 제공하면서 살아간다면, 일자리가 창출되어 실업자들도 실업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고, 현금이 부족한 사람들도 구매력을 지니게 되어 상품거래가 이루어짐으로써 경제가 활성화된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더 높은 삶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연자매계와 같은 공동소유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를테면 농촌에서 혼자서 구입하고 운영하기에는 버겁지만 반드시 필요한 콤팩트와 트랙터 같은 농업기계들을 10호~20호에서 공동 소유하고, 집집마다 여러 대의 승용차를 운영하는 대신에 몇 집이 차를 공동으로 운용한다면, 불필요한 가계지출을 줄이면서 이웃간에 친목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현금이 있어야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거래할 수 있다면, 현금이 부족한 지역이나 현금이 부족한 시기에는 부족한 현금을 확보하기 위해 생태계를 파괴하면서까지 개발 중심의 정책을 펴고, 현금이 부족한 계층에서는 현금을 확보하기 위해 자연을 싼 값에 팔아넘기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 하지만 현금이 없어도 '수눌면서' 필요한 물품과 노동력을 언제든지 제공받고, 자녀교육을 하고, 예술과 여가를 즐길 수 있다면, 지금처럼 현금을 확보하기 위해 자연을 싼 값에 팔아넘기거나 파괴하는 일은 줄어들 것이다.

수눌음과 계 등과 같이 자원과 노동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던 상부상조의 전통을 지역통화 등을 통해 오늘에 잘 되살린다면, 개인주의로 팽배로 인한 공동체 위기를 극복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소비를 확대함으로써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환경과 생태계를 지키는데도 상당한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6. 분가제도와 켄당문화 속의 ‘자립공존’ 정신

인간은 각자 개성을 가진 개체이면서 한 사회의 구성원이다. 개인은 가족의 차원에서 본다면 부분이고, 가족은 개인의 차원에서 본다면 전체이다. 그리고 마을은 가족의 차원에서 본다면 전체이지만, 보다 큰 지역사회의 차원에서 본다면 부분이다. 이처럼 모든 유기체는 부분과 전체의 속성을 동시에 지닌다. 케슬러(A. Koestler)는 부분과 전체의 속성을 동시에 지니는 유기체를 ‘홀론(holon)’이라 부르고, 모든 유기체, 즉 홀론은 개체의 자율성을 지키려는 자기주장적 경향(self-assertive tendency)과 보다 큰 전체로 통합하려는 경향(integrative tendency)을 동시에 지니고 있으며, 유기체가 건강해지려면 상반되는 두 경향 사이에 역동적 평형상태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아서 케슬러, 1993: 71-72쪽). 개인도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각자 자신의 자율성을 견지하면서도 가족 전체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

따라서 자식이 성장하여 부모로부터 독립하든가 부모가 늙어서 자식에 의지하는 경우에 부모자식 간의 관계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조정하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다. 제주섬에는 본토와는 달리 자식이 결혼하게 되면, 철저히 분가(分家)하는 가족제도가 있다. 즉 자식들이 결혼하면, 장남, 차남할 것 없이 양친과 별거하여 독립생활을 하게 된다. 부모가족과 자식가족은 취사를 따로 할 뿐만 아니라 경지를 분할하여 독자적 생산경영체가 되며, ‘돛통시’를 따로 사용하여 퇴비생산과 양돈을 따로 하는 등 일체의 생활에서 별개의 가족을 형성한다. 제주섬에서는 이처럼 직계친(直系親)이 한 울타리에 거주하더라도 토지의 소유, 경작 등의 생산활동은 물론 취사 및 기타 소비활동 등 일체의 경제활동을 분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최재석, 1979: 19쪽).

늙은 부모와 젊은 자식이 한 울타리에 살면서도 취사를 따로 하고, 경조사에도 부모와 자식이 따로 부조하는 제주섬의 관습은 대가족제도에 익숙한 본토사람들에게는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다. 결혼한 자식들은 철저하게 자립을 해야 했고, 부모 역시 아주 늙어서 노동력을 완전히 잃거나 몸져눅지 않는 이상 자식에게 의지하지 않았다. 철저한 분가제도는 신혼부부에게 더 한층 생계의욕을 북돋아주었고, 부모들은 늙어서도 자력으로 생계를 유지하면서 활동하니까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다. 이처럼 제주의 가족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철저한 분가주의와 강한 독립생활에 있다. 그리고 철저한 분가제도는 단순히 부모자식 간에 독립적인 삶뿐만 아니라 부부 간에도 어느 정도 독립된 경제활동을 하도록 하였다. 다시 말해서 아들뿐만 아니라 딸에게도 재산상속이 이뤄지고 부모의 장례 때도 아들뿐만 아니라 딸도 나름대로의 역할과 책임을 져야 했다. 그 결과 여자들끼리의 계가 따로 있고, 경조사에서도 부모와 자식, 남편과 아내가 각각 따로 부조를 하는 특이한 상조문화도 생겨났다(윤용택, 2007: 237쪽).

다른 한편 철저한 분가제도에 바탕을 둔 자립하는 삶은 불가피하게 또 다른 공동체적 삶을 요구하게 되었다. 제주사람들은 켄당문화를 통해 ‘따로’ 자립하는 삶과 ‘함께’ 공존하는 공동체적 삶 사이에 역동적 균형을 취하였다. 제주사람들은 친인척을 모두를 포괄하여 일컫는 개념으로 ‘켄당[眷黨]’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아버지쪽 친족을 성펜켄당[父系親], 어머니쪽 친족은 외펜켄당[外戚], 남자가 결혼해서 생긴 처가쪽은 처켄당[妻族], 여자가 시집가서 맺어진 친족은 시켄당[媿家] 등으로 불렀다(김혜숙, 1999: 401쪽). 철저한 분가제도는 자녀들 간에, 그리고 부부 간에 비교적 평등한 관계를 유지하게 했고, 그러한 사고는 친가(親家)뿐만 아니라 외가(外家)와 처가(妻家)와도 강한 유대관계를 맺도록

했다. 그리고 제주사람들은 추석·설날 인사와 결혼·장례 협조는 부계 친과 모계친의 차이를 인정할 수 없을 정도로 거의 동등하게 협동하여 생활하였고, 일상의 생산활동이나 가사협조에서도 그 차이는 없었다(최재석, 1979: 150-162쪽).

이처럼 철저한 분가제도는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립하는 전통을 낳았고, 그러한 전통은 부부 사이와 남녀 사이에도 평등을 추구하는 사회로 나아가게 했다. 그리고 그러한 자립과 평등의 전통은 다른 지역에는 없는 ‘켄당’을 형성하여 서로의 도움이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함께할 수 있는 공동체 문화로 고양되었던 것이다.

물론 그러한 켄당문화가 긍정적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켄당’으로 대표되는 제주사회의 끈끈한 연고주의는 합리적 선택을 해야 할 때 비합리적 선택을 하게하고, 부정이나 비리에 대해서도 합리적 비판을 어렵게 하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철저한 분가제도와 켄당문화는 그 취지를 잘 살린다면 자녀가 한둘인 핵가족사회, 남녀평등주의와 개인주의에 익숙한 노령화사회로 접어드는 오늘날에 보다 더 설득력을 얻을 수 있다. 철저한 분가제도는 자식이 결혼한 이후에 부모와 독립 세대를 형성하여 각자의 자율성을 추구하는 것을 선호하는 오늘날 개인주의 성향에도 걸맞으며, 친가(親家)만이 아니라 외가(外家), 처가(妻家), 시가(媿家) 등과 강한 유대관계를 맺는 켄당문화는 남녀가 평등하고 자녀를 적게 낳는 오늘날 추세에 잘 어울리는 삶의 방식이라 할 수 있다.

우리가 경제적 정서적으로 잘 살기 위해서는 각자 독립된 개인으로서의 자기주장을 펴면서도 필요한 경우에는 보다 큰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따로’하는 삶[自立]과 ‘함께’하는 삶[共存] 사이에 역동적 균형이 유지되어야 한다. 제주섬의 철저한 분가제도와 켄당문화는 서로의 장단점을 보완해주는 상보적 가족제도

로써, 각자 독립하여 ‘따로’ 살려는 경향과 필요한 경우에 공동체에 ‘함께’ 귀속되려는 서로 상반된 경향 사이에 역동적 균형을 취할 수 있게 해주는 이상적 가족제도의 모델이다. 그리고 분가제도와 켄당문화는 재화와 노동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함으로써 자원과 재화의 낭비를 막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생태적 요소와 연결된다.

Ⅲ. 맺는 말

육지와 멀리 떨어진 섬들은 제한된 공간과 유한한 자원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지구와 유사하다. 그렇기 때문에 섬들의 과거는 인류의 미래에 대한 좋은 모델이다. 제주섬의 전통문화는 앞으로 인류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메시지를 전해준다. 제주사람들이 어려운 역경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한마디로 생태적으로 살았기 때문이다. 제주섬의 전통문화는 생태문화였고, 제주섬의 전통사회는 생태사회였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제주사람들은 산천초목과 인간 이외의 생명도 소중하다는 믿음(민간 신앙)을 가지고 자연을 잘 보전했고, 자연의 흐름에 순응하는 세시풍속(신구간)을 지키면서, 각종 폐기물을 자원으로 순환하는 시스템(돛통시)을 통해서 자원고갈과 폐기물을 최소화했으며, 자연환경과 사회환경에 잘 맞는 옷(갈옷)과 먹거리를 창안하였다. 그리고 적은 자원과 인력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공동체(수눌음) 내지는 결사체(계)를 조직하였고, 개인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가족제도(분가제도)를 두면서, 필요하면 언제든지 협력할 수 있는 공동체 문화(켄당문화)를 마련하여 지속가능한 삶을 살아왔다.

물론 그러한 제주섬의 전통문화는 오늘날 관점에서 본다면 부정적 측면들도 적지 않다. 이를테면 즈낭정신을 문자 그대로 적용하다보면 산업을 건전하게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적정 소비와 생산마저도 위축시킬 수 있다. 그리고 민간신앙과 친구간 풍속에는 비합리적 요소가 있고, 돛통시에는 비위생적 요소가 있으며, 계모임은 불필요한 과소비를 부추기고, 켄당문화는 합리적 선택과 비판마저도 질식시키는 맹목적 연고주의로 나아가게 하는 측면이 있다. 그리고 현대사회는 생산과 소비의 과잉으로 재화와 폐기물이 넘쳐나고, 대량 실업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일거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적은 자원과 노동력으로 살아가는 과정에서 생겨난 제주의 전통문화를 현대사회에서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이다.

오늘날 시장에 상품은 넘쳐나지만 극심한 양극화로 대중들의 구매력이 떨어져 상품이 팔리지 않고 있고, 경제침체로 일자리가 부족하여 실업자가 넘쳐나고 있다. 현금이 부족한 세력은 현금을 확보하기 위해 자연을 싼 값에 팔아넘기고, 정부에서는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이름아래 규제완화를 통해 대자본의 과도한 개발을 용인하고 있다. 그리고 개인주의가 팽배하는데 반하여 공동체 의식은 점차 사라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사회의 현안들, 즉 경제위기, 생태위기, 공동체위기 등을 해결하기 위한 지혜가 필요하다.

우리는 전통문화의 내용과 형식 그 자체보다는 그 속에 깃든 정신과 지혜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옛 제주사람들은 자연에 순응하고, 폐기물을 자원으로 순환시키며, 부족한 자원과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따로'하는 삶[自立]과 '함께'하는 삶[共存]을 유연하게 넘나들면서 경제적·정서적으로 최선의 합리적 삶을 추구했다. 그러한 그들의 삶과 문화를 잘 분석해본다면, 지속가능한 인류의 미래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논자는 큰 틀 속에서 제주섬 전통문화의 핵심은 생태문화임을 밝히고, 그것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를 찾아보려고 하였다. 각각에 따로 떨어진 전통문화의 요소들, 즉 민간신앙, 신구간, 돛통시, 갈옷, 누술음과 계, 분가제도와 권당문화 등을 ‘생태’라는 이름으로 엮으려고 시도하였다. 그 과정에서 ‘생태’는 ‘경제’와 ‘공동체적 삶’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경제가 어렵고 부의 양극화로 소득불균형이 심해질수록, 현금이 부족한 세력들은 더 많은 현금을 확보하기 위해 환경과 생태계를 파괴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개인주의가 팽배할수록 재화와 서비스가 효율적으로 관리되지 못함으로써 자원과 인력이 낭비될 가능성이 높다. 제주섬의 전통문화 속에 깃든 ‘자연외경’, ‘자연순응’, ‘자원순환’, ‘소박실용’, ‘상부상조’, ‘자립공존’의 정신들을 오늘날 현실에 맞게 잘 변용한다면 우리가 처한 경제위기, 생태위기, 공동체위기를 극복하는 데도 어느 정도 기여할 것이다.

이 글은 총론적 논의에 그치고 심층적 분석에까지 이르지 못하였다. 하지만 조그만 성과라고 한다면 그동안 별로 관련이 없어 보이던 제주섬의 여러 전통문화 속에 생태적 요소들이 함축되어 있고, 그것들은 오늘날 인류와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경제위기, 생태위기, 공동체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여러 단초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점이다. 제주섬 전통문화의 생태문화적 요소들에 대한 보다 치밀한 각론적 분석은 차후 과제로 남긴다.

참고 문헌

- 강정효(2009), 『제주 신당의 보존과 활용방안』, 『(사)제주전통문화연구소 문화정책 세미나 자료집』, 제주전통문화연구소.
- 고부자(2008), 『갈웃』, 『제주문화상징』,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문화예술재단.
- 고찬화(2004)편저, 『제주의 전설과 민요』, 디딤돌.
- 김석준(1993), 『제주도 농촌마을의 계절사채와 사회통합』, 『사회발전연구』9집, 제주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 김성원(1994), 신편 『한국의 세시풍속』, 명문당.
- 김영돈(1984), 『제주도 연자매(돌방에)』, 『제주도연구』제1집, 제주도연구회.
- 김혜숙(1999), 『제주도 가족과 권당』, 제주대학교출판부.
- 박희병(1999), 『한국의 생태사상』, 돌베개.
- 송성대(1998), 『문화의 원류와 그 이해』, 파피루스.
- 아서 케슬러(1993), 『아누스』, 최효선 옮김, 범양사출판부.
- 윤용택(2004), 『21세기에 다시 보는 제주도-dot통시 문화』, 『탐라문화』25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 _____ (2005), 『지역통화운동의 환경철학적 의미』, 『환경철학』 제4집, 한국환경철학회.
- _____ (2007), 『제주섬의 전통문화와 생태사상』, 『생태문화와 철학』, 한국환경철학회, 금정.
- _____ (2008), 『제주도 신구간 풍속 연구』, 제주대학교출판부.
- 이 증(2001), 『남사일록(南槎日錄), 1681』, 김익수 옮김, 제주문화원.
- 이기욱(1995), 『제주도 농민경제의 변화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박사학위논문).
- _____ (2003), 『제주 농촌경제의 변화』, 집문당.
- 전경수(1997), 『통시와 분노처리장: 환경문제와 생태민속지』, 『제주의 인간과 환경』, 오름.
- 조성윤 외(2003) 『제주지역민간신앙의 구조와 변용』, 백산서당.
- 진성기(1967), 『新舊間과 民俗信仰』, 『국어국문학』34·35 합번호, 국어국문학회.

- _____ (2005), 『무속학』, 제주민속연구소.
- _____ (2008), 『복을 비는 사람들-1960년대 중심으로(제주무속학 사진집1)』, 디딤돌.
- 최재석(1979), 『濟州島의 親族制度』, 일지사.
- 프리츠포 카프라 외(1997) 『신과학과 영성의 시대 *Belonging to the Universe* (1991)』, 김재희 옮김, 범양사.
- 하순애(2008), 『제주도 신당 이야기』, 제주대학교출판부.
- 현용준 외(1986), 『제주도민의 삼무정신』, 제주시.
- 현용준(2005), 『제주도 신화의 수수께끼』, 집문당.
- 현진숙(2008), 『갈옷』, 『제주문화상징』,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문화예술재단.
- 홍만선(1973), 『山林經濟』(한국학기본총서제8집 吳漢根 소장본 영인본), 경인문화사.
- 홍만선(1986), 『국역 산림경제』, 민족문화추진회 옮김, 민족문화문고간행회.
- 『新增參贊秘傳 天機大要, 1981』(原本 影印版), 대한역법연구소 편, 대지문화사.
- 『제주문화상징, 200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문화예술재단.
- 『제주도지, 1993』 제1권, 제주도.
- 『제주도지, 2006』 제5권, 제주도.
- 『조선대세시기I, 2004』(조선전기문집편), 이창희, 최순권 역주, 국립속박물관.
- 『한국기후편람, 1985』, 중앙기상대.
- 『한국기후표(1971~2000)』, 기상청.
- 『한국세시풍속자료집성, 2004』(조선전기문집편), 국립속박물관.
- F. Capra(2002), *The Hidden Connections*, Doubleday.
- J. Rifkin(1980), *Entropy*, The Viking Press.

Abstract

Contemporary Significance of Jeju Island's Ecological Culture

Yoon, Yong-Taek*

The world is now facing serious crises: an economic crisis brought by globalizing the economy, an ecological crisis driven by excessively exploiting the natural environment, and a community crisis fueled by extreme egoism. There is a great need of wisdom to ride out the crises and revive ecosystem, economy, and community.

The islands apart from main land are similar to the earth in terms of constricted space and limited natural resources. For that reason the past of islands is a good model of the future of the earth. Traditional Jeju heritages leave a good message of how man should live in the future.

The traditional heritages of Jeju Island are ecological culture. Jeju islanders have believed that mountains, streams, plants, and other lives are as valuable as human life itself, so they have cherished the nature. They have lived by seasonal customs (for example, *shingugan*), and they also have adapted themselves to the nature. They have minimized wastes and the exhaustion of natural resources by employing systems (for example, *Tottongshi*) designed to turn wastes into resources. They have developed clothes (for example, *Galot*) and food suitable with the natural and social environment of Jeju Island. They have organized various communities (for example, *Suneuleum*

* Professor, Department of Philosophy, Jeju National University

and *Gyeu*) to manage short resources and insufficient labor forces. They have implemented a family system (*Pungajedo*) which secures individual autonomy, and have organized an extended family community (*Qeundang*) which helps to cooperate with each other if necessary. By doing so, Jeju islanders have sustained the natural environment and social culture.

Of course, there are some negative aspects in Jeju heritages from a contemporary perspective. But we must grasp their intent and wisdom rather than their form and content. Old Jeju islanders have adapted themselves to the nature, converting the wastes to resources, dividing the resources and labor forces, and cooperating with each other if necessary. They made a sensible decision between private and group lives, and so pursued the economic and emotional satisfaction.

The wisdom of islanders is the old answer to the question: "How should man live in the future?" If we would carefully analyze the heritages of Jeju islanders, we could see the sustainable future.

Key Words

traditional heritage, ecological culture, folk beliefs, *Shingugan*, *Dotongsih*, *Galot*, *Suneuleum*, *Gyeu*, *Pungajejdo*, *Qeundang*

교신 : 윤용택 690-75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대학로 66
 제주대학교 철학과
 (E-mail : sumsaram@jejunu.ac.kr 전화 : 064-754-2753)

논문투고일 2010. 04. 20.

심사완료일 2010. 07. 10.

게재확정일 2010. 08. 01.